

대학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정 정 진**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이 해 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요 약》

이 연구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 실시 이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실태와 요구 및 문제점을 수집·분석하여 장애학생들의 원활한 대학생활 영위를 위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자료로서 대학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연구의 전반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 지침을 구안하고자 특별전형제 실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와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지원 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원지침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위해 전문가협의회 면담자료와 미국 2개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자료를 수집·분석·반영하였다. 이상의 다면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학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4개 영역-지원 체제, 입학 지원, 학습 지원, 및 생활 지원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많은 대학들이 이 연구 결과를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대학 장애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제,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1. 서 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그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권리를 보장받아 사회에 완전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근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평등관계에서 벗어나 개인 또는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수단

* 이 논문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2-B00166)

** 제1저자, 교신저자(ch300@kangnam.ac.kr)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알맞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학은 교육적격자 선발에 있어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지적능력과 학업성취도 중심의 보편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하였다(김성진, 2003).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일반학생에 비해 사회적 또는 경쟁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보상기준을 적용하는 특별전형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김지영, 2000). 이로 인해 그간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을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과 대학 학생정원령 및 특수교육진흥법 등을 개정하여 1995년부터 실시한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입학 특별전형제도」는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95학년도 6개교 107명으로 출발한 특별전형 대학입학은 2004학년도 49개교 309명, 2005학년도 58개교 344명으로 장애학생 입학허용 대학교와 장애학생 입학자 수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5),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대학간의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입학 특별전형제도의 추진 및 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시 장애학생 기숙사 및 편의시설 확충 실적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에 의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촉구한 바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그러나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입학 문호개방 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률이 저조하고, 대학당국의 인식부족과 지원체계 미흡으로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수-학습지원 및 시설·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 불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권병현, 1999; 김헬레나, 2000; 조한진, 1998), 일부 대학에서는 장애학생들의 휴학과 중도탈락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 장애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학업성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저하되어 학사경고나 휴학 등의 중도탈락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김성애 등, 2003; 양재신, 2000). 또한, 교직원 및 일반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학생들은 인간관계에서 심리적 갈등이 크며, 전반적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보이고 있다(김동연 등, 1999; 오경자, 1998; 원종례, 2001; 윤점룡 등, 2002; 최민숙 등, 2002). 그러므로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남순, 2001; 김성애 외, 2001; 박계순, 2002; 김동연 등, 1998).

한편,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통한 직업진로 모색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통적 관심사항으로 부상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의 직업진로 및 취업은 장애인이라는 제한을 제거하는 동시에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의 취업대책은 매우 미흡하여 고등교

육의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학력 장애실업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교육부, 1999), 많은 학생들이 취업상담 전담부서를 두어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용주, 2003).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는 장애학생 진로상담이나 취업지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몇몇 조사연구(윤점룡 등, 2002; 김헬레나, 2000; 김동연, 1999)에 의하면 많은 대학들은 장애인에 대한 특별전형제 입학만 허용하고 있을 뿐, 그들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시설·설비 개선 정도의 편의만을 제공하는 수준이며, 어떠한 교육서비스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장애학생들에 있어서 대학은 계속되는 고통의 과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급기야 대학을 상대로 학습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학생까지 나타나게 되었다(윤점룡 등, 2002).

이같이 장애학생들이 대학의 생활과 학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아직까지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및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2003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음에도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잘못된 편의시설 설치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를 받은 전체대학의 75%가 「개선요망」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의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지원 정도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종인(2004)은 실질적인 교수·학습지원 정도는 시설·설비 측면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수-학습지원 체계정비 등의 개선책이 무엇보다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대학 장애학생 다수가 시설·설비 측면의 지원보다는 교수-학습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장애학생들의 요구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학생활의 핵심요소인 교수-학습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수강신청에서부터 강의실의 교수-학습 촉진을 위한 다양한 교재·교구, 학습도우미 지원과 교육평가에 이르기까지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종합적 교육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정정진, 2003).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를 격년제로 2005년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지난 평가에서 수집된 각 대학별 우수사례와 규범 및 외국의 대표적인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침서 개발

을 위한 정책연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일선대학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구축·실시하면서 향후의 평가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 실시 이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실태와 요구 및 문제점을 수집·분석하여 장애학생들이 원활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자료로서 대학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편의를 위한 시설·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한 조사는 다양한 집단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 다섯 가지 측면으로 실시되었다. 첫 단계는 이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예비조사로서 관련 전문가집단과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두번째 단계는 구체적 지원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원 지침을 구안하고자 특별전형제 실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와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지원 요구를 조사하였다. 세번째 단계는 지원 지침(안)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위해 전문가협의회 의견과 미국 2개 대학을 방문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였다.

1. 조사연구 대상

1) **연구방향 설정 심층면담** : 특별전형제 실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장애학생 지원관련 특수교육행정가-1명, 대학 장애학생 지원 담당자-3명, 장애학생 지원 연구경험 교수-3명 및 영역별 장애대학생-9명의 총 16명을 대상으로 했다. 심층면담은 지원 전문가집단과 학생집단을 분리하여 2005년 4월 15-16일 양일간 유성 M음식점에서 심층면담(Krueger & Casey, 2000)을 실시하였다.

2) **장애학생 지원 실태조사** : 2003학년도 특별전형제 실시 대학의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 국·사립 대학교 48개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그 중 응답지를 보낸 42개교(87.5%)를 이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장애학생 지원 요구 조사** : 특별전형제 실시 대학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지원 실태와 요구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권역별로 많은 장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수

도권지역 6개와 지방 6개 총 12개 대학을 임의로 선정하고, 장애영역별 수를 균형있게 중등도 이상의 장애학생 160명(시각: 40, 청각: 40, 지체: 80)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그 중 응답지를 보낸 119명(시각: 27, 청각: 25, 지체: 67)을 이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전문가 협의회** : 개발된 지원지침(안)에 대한 타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교수 3명과 대학 장애학생 지원 실무책임자 3명, 연구기관 연구원 2명, 특수교육행정가 1명, 장애학생 3명(영역별) 총 1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 **외국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조사** : 지원 지침(안)에 대한 타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외국의 동향과 실태를 알아보고자 미국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대표적 대학인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UCB)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CSUN) 2개교를 방문조사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 절차 및 방법

1) **연구방향 설정 심층면담** : 면담 5-6일 전에 장애학생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 등에 관한 개방형문항을 심층면담 대상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대한 면담을 준비토록 하였다. 면담 초에 연구의 기본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다음, 면담 대상자 1명이 미리 준비한 면담 주제를 발표하고 그에 대해 영역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 과정을 녹음·기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장애학생 지원 실태조사** : 특별전형제 실시 49개교를 대상으로 김형수 등(2001)과 윤점룡 등(2002)이 사용한 조사지를 참고하여 <표 II-1>의 내용으로 제작한 실태조사 설문지를 2005년 4월 15일 각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회수하였다.

<표 II-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조사 내용 구성

영역		총 문항수	내용	내용 문항수
일반사항		4	개별 학교 정보	4
지원제도	제도	8	장애학생 지원 기구 및 담당자	4
			장애학생도우미	2
			학칙과 내규	1
			장애학생 이해 교육	1
교육지원	입학지원	2	특별전형제	2
	영역별 학습지원	17	청각장애학생의 학습지원	5
			시각장애학생의 학습지원	7
			지체장애학생의 학습지원	5
생활지원	생활지원	6	장애학생 생활지원	6
계		37		37

3) 장애학생 지원 요구 조사 : 조사도구는 김형수 등(2001), 김헬레나(2000), 윤점룡 등(2002)이 사용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이 연구에 알맞게 제작하였다. 제작된 설문지는 D, Y 대학 장애학생으로서 청각, 지체, 시각 장애별 남·여 각각 2명 총 12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표 II-2>의 내용으로 재구성된 조사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대상 12개 대학의 장애학생 1명씩 총 12명을 대학별 설문조사 요원으로 선정한 다음, 조사대상 학생들에게 조사지를 2005년 4월 22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그 대학 설문조사 요원이 책임지고 4월 말일까지 설문지를 회수하도록 하였다.

<표 II-2> 대학에 대한 장애학생들의 지원 요구조사 내용 구성

영역		총 문항수	내용	문항수
일반사항		3	개인별 정보	3
지원제도	제도	3	장애인 인식	2
			장애학생 문제해결 창구	1
교육지원	입학지원	2	특별전형제 개선	2
	학습지원	10	수강신청 지원	2
			학업수행상의 지원	4
			교재·교구 지원	2
			평가 지원	2
생활지원	생활지원	7	장학지원	1
			생활상담	2
			진로 지원	1
			취업 지원	1
			기숙생활 지원	2
계		25		22

4) 전문가 협의회 :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지원지침(안)에 대한 타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원지침 내용에 관한 개방형 질문지를 대상자들에게 5-6일 전까지 전달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005년 5월 13일 유성의 한 음식점에서 구성원 중 2명이 주제를 발표하고, 그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로 개진한 의견을 기록·녹음하여 수집하였다.

5) **외국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조사** : 미국의 2개 대학에 방문 1개월 전에 인터넷상으로 방문 목적과 자료수집 내용 및 일정을 담아 방문허락을 받고, 6월 2일에는 UCB의 장애학생지원부(The Disabled Student's Program : DSP), 6일에는 CSUN의 장애인센터(Center on Disabilities :COD)와 국립청각장애센터(National Center on Deafness : NCOD)를 방문하여 소장들과 면담을 통해 실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1)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자 실시한 심층면담 결과는 전문가집단과 장애학생집단을 구분하여 질적 분석을 통해 주요 내용을 영역별로 정리하였다.

2) 장애학생 지원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구분하여 지원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장애학생들의 요구조사 결과는 장애영역별로 반응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문항별 3-5개의 답지 중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만 요약 제시하였다.

3) 개발된 지원 프로그램 지침(안)에 대한 타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문가협의회(장애학생 포함) 심층면담 결과는 지침(안)에 구분된 영역별로 동의 정도가 높은(참석자 1/2 이상) 주요 내용을 영역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미국 2개 대학(UCB, CSUN)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는 지면의 한계상 요점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III. 조사연구 결과

1. 연구방향 탐색 심층면담 결과

특별전형제 실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반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구 방향을 탐색하고자 지원 관련 전문가집단과 장애학생집단을 분리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문가집단은 <표 III-1>에, 학생집단의 응답 내용은 <표 III-2>에 제시하였다.

<표 III-1>의 심층면담 결과는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특별전형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국가 및 대학의 준비부족으로 학생들의 적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둘째, 장애학생 학습 및 생활지원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셋째, 지원에 대한 체계성이 부족하여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지침서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III-1> 장애학생 지원 관련 전문가집단의 면담조사에 대한 응답 내용

구 분	질의내용	응 답
지원 제도	제도	- 교수-학습 및 생활지원 체제 확립 필요 - 질적이며 개별화된 지원 - 교수-학습 및 생활지원 지침서 개발·보급 필요
교육 지원	입학 지원	-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권 존중 - 특별전형제 많은 대학에 확대 필요 - 국가와 대학의 준비부족으로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줌
	학습	- 적절한 지원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 부족 - 학습도우미, 노트북, 문자확대기 등 교재·교구 지원 - 장애학생 지원미약으로 학업성취 미약
생활 지원	생활	- 등급별 장애학생 별도의 장학금 수혜 기준 설정 실시 - 동아리활동, 기숙사 등 생활도우미 제공 - 학과 선배·동료의 자원봉사 지원(사회 봉사학점 인정) -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상담 필요

<표 III-2> 대학의 지원에 대한 장애학생들의 면담조사에 대한 응답 내용

구 분	질 문	응 답	시(3)	청(3)	지(3)
지원제도	제도	- 지원제도 실제성 부족한 전시용 많음.	1	1	2
		- 지원 전담자 부재 요청 방법 알 수 없음	2	2	3
		- 장애학생 자원센터 절대 필요	3	3	3
교육 지원	입학지원	- 기본권적 교육권 및 교육기회 확대	2	2	3
		- 통합경험 부족으로 대학시 부적응 심화	2	1	2
		- 대학의 지원 미약으로 불편사항 많음	2	-	1
	학습	- 정보부족으로 수강신청 어려움	1	3	1
		- 대필자, 수화통역 필요	2	2	-
		- 조별과제(기관방문) 참여기회 없음	2	-	1
- 과제물(책 요약, 인터넷 검색)대책 없음	3	-	-		
- 방법 부적합으로 불평등·불공정 평가	2	-	1		
-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 부족	1	1	1		

<표Ⅲ-2>에서 계속

구 분	질 문	응 답	시(3)	청(3)	지(3)
생활 지원	생활복지	- 교직원들과 의사불통 문제 많음	1	2	1
		- 장애등급별 실질적 장학금 지급 필요	1	2	3
	진로 및 취업지도	- 진로 및 취업상담 지원 태부족	1	2	2
		- 장애인 구인정보 관리·정보제공 필요	2	-	1
		- 취업 준비교육이나 강좌의 개설 필요	1	3	2
	기숙사 생활	- 기숙사에 사회복지사 상주 지원 필요	3	3	3
- 기숙사도우미(수화통역) 상주 요망		3	3	3	

<표Ⅲ-2>의 장애학생들의 면담조사 결과, 첫째, 특별전형제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지원 미약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다. 둘째, 학습지원이 전반적으로 개별 학생에게 부적절하고 지원이 미약하다. 셋째, 생활지원이 미약하여 대학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넷째, 지원제도의 확립과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2. 장애학생 지원 실태

1) 장애학생 지원제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는 <표Ⅲ-3>과 같다.

<표Ⅲ-3> 대학 장애학생 지원제도 실태 () 속은 %

항 목	국립(6)	사립(36)	계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 설치 현황	1(16.7)	6(16.7)	7(16.7)
장애학생 지원 담당자 배치	2(33.3)	17(47.2)	19(45.2)
장애학생 동료 도우미제 운영	1(16.7)	11(30.6)	12(28.6)
장애학생을 위한 학칙과 내규	3(50.0)	16(44.4)	19(45.2)
장애 이해 관련 교양강좌	1(16.7)	18(50.0)	19(45.2)
신입생 교육시 장애학생 이해 프로그램	1(16.7)	8(22.2)	9(21.4)

<표Ⅲ-3>에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국공립 1개, 사립 6개 총 7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담당자를 두고 있는 대학은 19개, 동료학생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12개로서 장애인 특별전형제 실시 대부분의 대학들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학생 지원 학칙이나 내규가 있는 대학은 19개 대학으로 많은 수의 대학들이 특별한 학칙이나 내규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이해 교양강좌 개설 대학은 19개, 신입생 OT에 장애 학생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은 9개 대학으로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21.4%에 불과하였다.

2) 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조사 결과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 지원 실태조사의 결과, <표Ⅲ-4>에 학습지원 실태를 장애영역별로 제시하였다.

(1)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실태 : 시각장애학생 지원 실태를 13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결과, 스크린 확대기(CCTV)와 프로그램 보유가 40.5%를, 점자 프린터 제공이 23.8%의 지원율을 보일 뿐 나머지 분야에서는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실태 : 응답한 42개 대학의 시각장애학생 지원

<표Ⅲ-4> 영역별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실태 () 속은 %

유형	지원 항목	국립(6)	사립(36)	계(42)
시각	점자 프린터 제공	1(16.7)	9(25.0)	10(23.8)
	음성지원 컴퓨터 프로그램 제공	1(16.7)	5(13.9)	6(14.3)
	음성지원 노트북 대여	1(16.7)	3(8.3)	4(9.5)
	강의록 녹음 체제 구비	3(16.7)	3(8.3)	6(14.3)
	음성변환 문서파일 편집 교재 제공	1(16.7)	5(13.9)	6(14.3)
	스크린 확대기(CCTV)와 프로그램 보유	2(33.3)	15(41.7)	17(40.5)
	시각장애인용 자료실 확보	1(16.7)	7(19.4)	8(19.1)
청각	전문 수화통역사의 강의 지원	1(16.7)	4(11.1)	5(11.9)
	수강신청 우선지원	2(33.3)	19(52.8)	21(50.0)
	강의실 좌석 우선 배치	3(50.0)	20(55.6)	23(54.8)
	교직원 중 수화통역 가능자	0(0.0)	8(22.2)	8(19.0)
지체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장학제도	0(0.0)	8(22.2)	8(19.0)
	수업 편의를 위한 도움 인력 지원	2(33.3)	14(38.9)	16(38.1)
	접근이 용이한 강의실 변경 편의	3(50.0)	18(50.0)	21(50.0)
	노트북 등 학습보상기자재 제공	1(16.7)	8(22.2)	9(21.4)
	대필지원 도움 인력 제공	2(33.3)	15(41.7)	17(41.5)
	학사행정 1대1 대인 서비스 제도	1(16.7)	11(30.5)	12(28.6)

실태를 13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결과 <표Ⅲ-4>와 같이 수강신청 우선지원(50%)과 강의실 좌석 우선배치(54.8%)를 제외하고는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체장애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실태 : 지체장애학생 지원 실태를 5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결과, 접근이 용이한 강의실 변경(50.0%), 대필인력 지원(41.5%), 수업 편의를 위한 인력 지원(38.1%), 노트북 등 학습보상기자재 제공(21.4%), 학사행정 1대1 대인 지원(28.6%)에서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지원이 빈약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학생 생활지원 실태조사 결과

생활지원 실태조사 결과는 <표Ⅲ-5>와 같다. 여기서 보면 많은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42.9%), 장애학생 진로상담(38.1%)과 장애학생 취업상담(30.1%)도 여러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숙사 도우미 지원(30.1%)도 여러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그 외 대학들은 이러한 생활지원을 하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여가 및 동아리활동 지원(19.0%)은 거의 많은 대학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5> 장애학생에 대한 생활지원 실태

지원 항목	국립(6)	사립(36)	계(42)	비율(%)
장애학생 별도의 장학금 지원	3	15	18	42.9
장애학생 별도의 대학 생활지도	1	9	10	23.8
장애학생 진로상담	2	14	16	38.1
장애학생 취업상담	2	11	13	30.1
기숙사 도우미 지원	2	11	13	30.1
여가 및 동아리활동 지원	0	8	8	19.0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첫째,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미비, 둘째, 학습지원의 미약, 셋째, 생활지원이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학생 지원 요구 실태

대학에 대해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경향은 어떠한지를 장애영역별로 알아본 결과, 장애영역별, 문항별 3-5개의 답지 중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만 요약 정리하여 <표Ⅲ-6>에 제시하였다.

이것을 보면, 지원제도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애학생 자원센터 설치와 지원 전담자 배치, 지원창구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시용 제도가 아닌 실제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전형제 실시에 관해서는 장애학생 지원체제를 구비한 다음, 장애학생을 입학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이 각 영역별로 크게 나타났으며, 특별전형제 실시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학습지원 영역에서 장애영역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시험시간 연장, 수강신청 우선 지원제 실시, 수강신청시 도우미 제공, 과제물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히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시험시간 연장과 수강신청 우선지원제 실시는 시

각장애학생 대부분이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교구의 신속한 보수 혹은 대치,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평가방법 사용, 교강사 강의노트 파일 제공 등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면, 지체장애학생은 낮은 반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학생들의 요구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III-6> 대학에 대한 장애학생의 지원 요구 내용 () 속은 %

구 분		응 답 내 용	시(27)	청(25)	지(67)	계(119)
지원 제도	제도	- 지원 전담자 배치로 지원창구 일원화	25(92.6)	25(100)	41(61.2)	91(76.5)
		- 전시적 제도 아닌 실제적인 지원제도	11(40.7)	7(28.0)	26(38.8)	44(37.0)
		- 장애학생 자원센터 설치	27(100)	25(100)	58(86.6)	110(92.4)
교육 지원	특별 전형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지원체제 구비	18(66.7)	15(60.0)	37(55.2)	70(58.8)
		- 특별전형 실시 대학에 국가 재정지원	13(48.1)	14(56.0)	31(46.3)	58(48.7)
	학습 지원	- 수강신청시 도우미 제공	21(77.8)	11(44.0)	35(52.2)	66(55.5)
		- 수강신청 우선지원제 실시	22(81.5)	13(52.0)	37(55.2)	72(60.5)
		- 학습지원 인력(대필·수화) 제공	23(85.2)	13(52.0)	13(19.4)	49(41.2)
		- 장애학생 배려 교수방법(판서 등)	19(70.4)	15(60.0)	22(32.8)	56(47.1)
		- 교강사 강의노트 파일 제공	21(77.8)	16(64.0)	12(17.9)	49(41.2)
		- 과제물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히 제시	22(81.5)	20(80.0)	19(28.4)	61(51.3)
		-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	21(77.8)	14(56.0)	17(25.4)	52(43.7)
		- 교재·교구의 신속한 보수 혹은 대치	13(48.1)	9(36.0)	11(16.4)	33(27.7)
-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평가방법 사용	13(48.1)	12(48.0)	15(22.4)	40(33.6)		
- 시험시간 연장	25(92.6)	12(48.0)	34(50.7)	81(68.1)		
생활 지원	생활 지원	-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	23(85.2)	17(68.0)	42(62.7)	82(68.9)
		- 장애등급별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	15(55.6)	13(52.0)	27(40.3)	55(46.2)
		- 고립 장애학생 적응 위한 생활상담	11(40.7)	9(36.0)	21(31.3)	41(34.5)
		- 학내 생활지원 도우미 제공	21(77.8)	11(44.0)	34(50.7)	66(55.5)
		- 장애학생 진로상담	23(85.2)	20(80.0)	46(68.7)	89(74.8)
		- 장애인 취업상담 및 지도	24(88.9)	20(80.0)	47(70.1)	91(76.5)
		- 기숙사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지원	12(44.4)	9(36.0)	32(47.7)	53(44.5)
		- 기숙사에 장애인 학습도우미 지원	15(55.6)	11(44.0)	27(40.3)	53(44.5)

생활지원에서는 장애학생 진로상담과 취업상담 및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에 관한 요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장애영역별로 보면 지체장애보다는 시각장애학생들의 요구가 더 크게 나타났다. 고립된 장애학생 적응을 위한 생활상담과 기숙사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지원 및 학습도우미 지원은 그중 낮게 나타났는데, 아마 기숙사를 활용하지 않는 학생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전문가 협의회 결과

예비조사와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대학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침(안)’에 대한 타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전문가협의회(장애학생 포함)를 실시하였는데, 지침(안)에 제시된 영역별로 동의 정도가 높은(참석자 1/2 이상) 주요 내용을 영역별로 정리하였다.

1)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침의 필요성

- (1) 지원제도의 부실, 장애학생 이해 부족, 장애학생들의 지원 요구 부재 상태임.
- (2) 학습지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이 필요
- (3)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지침연구의 시의적절성

2) 프로그램 개발 지침의 구성방향

- (1) 지원제도, 입학지원 및 학습지원의 교육지원과 시설·설비지원을 제외한 생활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침 구성
- (2) 장애학생·교직원·일반학생들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
- (3) 모든 장애학생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보다는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의 책무 완수 중심의 일반적 지원 지침으로 구성

3) 지원체제 구축

- (1) 지원조직과 지원인력의 역할 제시
- (2) 지원 내용과 절차의 상세화

4) 장애학생 대학입학 특별 전형 제도

- (1) 입학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과 부당한 제한의 배제
- (2)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지원 내용과 절차

5) 신입장애학생 입학 오리엔테이션

일반학생과 대등하게 학습 및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의 체계적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

6) 학습지원 내용의 구성

- (1) 장애 특성에 따른 수강신청서 작성과정, 수강과정의 인적·물적 지원
- (2) 장애 특성에 따른 학습기자재제공 및 활용방법의 교육
- (3) 장애 특성에 따른 과제의 부과 및 평가 실시

(4) 장애학생 학업성취 하락 예방을 위한 보충학습 지원

7) 생활지원 내용의 구성

- (1) 장애 특성에 따른 생활지원 지침 제시
- (2) 대학학생 전반적 적응지도
- (3) 장애학생 진로상담 강화
- (4)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지도
- (5) 장애학생 보상적 차원의 장학금 지원

이상의 전문가협의회의 결과,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구축, 교육 및 생활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지침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동의하였으며, 상당히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도 제시하여 줌으로써 지침 개발에 큰 도움을 받았다.

5. 미국 2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 조사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1997)과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 1990), 그리고 재활법 504조(Section of the Rehabilitation Act: RA504, 1973)에 터하여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많은 장애학생들에게 특성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학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 대한 타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외국의 동향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던 미국의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UCB)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CSUN) 2개 대학의 지원 실태를 간략히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제시코자 한다.

1)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대학 장애학생프로그램(DSP)

이 대학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본부로서 9개 캠퍼스 중 가장 먼저 1868년에 개교하였는데, 그 학문적 수월성 수준으로 정평을 받고 있는 미국의 상위권 대학으로서 장애학생 지원대책이 대단히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도 유명하다.

이 대학 장애학생 지원은 행정조직상의 한 부서로서 단독건물에서 장애학생프로그램(The Disabled Students' Program : DSP)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이 지원부에는 부장인 Ed Rogers와 각 지원영역 전문가를 포함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원 대상학생 현황은 <표Ⅲ-7> 같다.

<표 III-7> DSP 지원 대상 장애학생 추이

장애 유형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학습장애	209	201	184	147
농 및 난청	23	31	22	23
맹 및 저시력	29	37	30	22
이동 장애	99	96	94	71
주의결함장애	111	125	121	106
후천성 뇌상해	11	16	18	-
언어장애	1	2	3	-
정신장애	130	142	150	137
기타 기능장애	209	193	165	116
계	822	843	796	622

(1) 일반적 지원(General Services)

① 학업 조연과 안내 : DSP는 교양과정 학생들을 주로 지원하고, 전공이나 학위 청구에 관한 정보는 단과대학이나 전공과정에서 조연 제공

② 편의 제공(Accommodations) : 강의내용 녹음, 시험시간 연장, 별도의 시험장소, 시험시 휴게실-투약-음식물 제공-연습기회 제공, 가정에서 시험보기, 시험 대필, 점자 시험지-확대문자 시험지, 4척계산기, 시험시 타자기-워드프로세서-컴퓨터 사용, 수업-시험시 기계적 실수(철자법, 구두법 등) 배려, 대안적 시험(예, 쓰기 대신 말하기, 복수선택형 대신 단답형 등), 학기당 이수학점 조정, 장학금 지원 등

④ 보조지원(Auxiliary Services) : 의사소통-대필-낭독 보조, 수화 통역, 수화 음역, 시간 자막처리, 연구 보조원, 실습 보조원, 시험 대필, 수행 보조원

⑤ 보조공학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선택·배치, E-mail 계정, 웹상의 자료 활용법 등 지원. 시각장애나 난독증 학생으로서 컴퓨터 활용하는 기술을 익힐려면 모피트(Moffitt)도서관에 있는 장애학생 공학지원 센터, 아케스톤의 학생개방도서관(Arkenstone Open Book System : AOBS) 및 자연발화시스템(Dragon/Naturally Speaking System : DSS)을 활용

⑥ 입학지원 : 입학 지원서류와 장애인 증빙서류 작성 지원

⑦ 수행보조원 소개 : 학생 개인관리, 가사, 이동 지원 보조원을 제공

⑧ 보상기술 및 적응전략 지도 : 개인에 맞게 기술이나 전략(예, 노트필기 기술, 시간관리, 암기, 시험 공부 방법)지도

⑨ 장애학생 동아리 : 지역, 주, 국가기관의 장인단체, 장애인 법률정보 제공

⑩ ELL 90 : “장애탐구”, “학습 분석과 성공전략 개발” 수강 장애인 인권 운동 및 장애 개념, 장애학생 지원정보 습득, 장애학생 자신의 특수능력 개발법 교육

⑪ 재정 지원 : 대학 재정지원부의 유자격 장애학생에게 장학금과 교부금 및 대출 지원·관리, 저소득층 장애학생의 경제적 자립, 교육기자재 구입 교부금 지원

- ⑫ 기숙사 지원 : 기숙사 특정한 공간 제공, 중증장애인 보조원 지원
- ⑬ 우선등록(TELE-BEARS) : 우선등록 시스템을 활용 입학과정에서 일반학생보다 우선등록, 수강신청 우선등록
- ⑭ 워크숍 ; 매 학기 장애학생 지원 주제로 워크숍 개최

(2) 장애영역별 지원 : 장애특성에 따른 사정과 평가로 학업습지원 제공.

※ 상세 내용은 <http://dsp.berkeley.edu/TeachStudentsWithDisab.html> 검색

2) 캘리포니아주립 노슬리지대학 장애인센터

이 대학교는 Los Angeles' San Fernando 중심부의 평지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학생 수가 28,000명, 교직원인 3,300명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세 번째로 큰 공립대학이다. 이 대학에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2개 있다. 이 대학 장애인센터(Center on Disabilities : COD)와 또 하나의 국립청각장애센터(National Center on Deafness : NCOD)가 각각 독립된 다른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청각장애 및 난청학생은 국립청각장애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그 외의 장애학생들은 장애인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은 2005년 봄학기 기준으로 COD에 794명, NCOD에 200명 총 994인 셈이다.

COD에는 2005년 현재 M. A. C. Prager 소장을 비롯한 각 영역의 전문가를 포함 26명의 직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정부에서 지원받는 9명의 전문가와 연방정부에서 지원받는 3명의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 지원 대상학생 현황은 <표Ⅲ-8> 같다.

<표Ⅲ-8> COD 지원 대상 장애학생 추이

장애 유형	2001 봄학기	2002 봄학기	2003 봄학기	2004 봄학기	2005 봄학기
의사소통장애	1	0	0	0	0
학습장애	373	367	382	359	339
이동	142	121	106	113	108
정신 및 건강장애	289	324	307	321	309
맹 및 저시력	33	41	41	41	38
계	838	853	836	834	794

(1) 장애인센터(COD)

COD에서는 장애학생이 원하면 학생 편의대로 상담약속을 하거나 상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상담에 응한다. 장애학생 지원은 개인카드에 나타난 진단과 기능적 제한을 기초로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낭독자, 대체교재, 대필, 보조공학, 계산기, 강의 녹음, 학습보조원, 우선등록 지원 등을 학생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고, 학생 신상정보는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한다.

특히, 이 대학 장애인센터는 매년 봄 1주일간에 걸쳐 국제장애인재활공학학술대회(International Technolog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ference; 2006년 21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전 영역의 장애인 재활공학 종합학술대회의 성격을 띄고 있다. 참석자는 세계 여러 나라 특수교육자, 재활공학자, 물리·작업치료전문가, 언어치료전문가, 재활기기 제작자 등 재활관련 모든 영역 전문가들로서 수천명이 참여하는 장애인재활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라고 한다. 그래서 장애인센터에는 학술대회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 3명이 있다.

【특성화 지원】

① 학습장애 : 학습장애학생은 진단카드를 가지고 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하는데, 진단카드는 최근에 발급받은 것으로써 의사의 진단 소견, 진단 결과, 학업성취능력, 정보처리능력 등 기능적인 제한점에 관한 진단결과가 명시돼 있어야 함.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학생 요구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훈련, 대필 지원, 낭독, 평가시 특별고사실 제공, 자기관리 전략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제공

② 정신건강장애 :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과 장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 제공. 정기적인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미팅 제공 및 동료 상담자를 연결시켜 학업향상과 장애로 인한 정신질환 경감

③ 학습매체 활용 교육 : 학습매체 필요시 교육공학전문가의 사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매체-전자도서, 확대문자, 음성지원, 점자도서, 축지도 및 모형 제공

④ 대필 지원 : 대필지원 요청자에게 동일 과목 수강생들 중 대필자 탐색 후, 대필자 지원하고, 대필자에게 매학기 과목당 50불의 지원금 지급

⑤ 컴퓨터 교육 : 학습·시각·지체장애학생 대상으로 보조공학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때까지 보조공학적인 편의 제공 및 활용교육.

⑥ 대안적 평가지원 : 평가시 편의제공을 요청하면, 시험시간 및 장소 조정

⑦ 동료교사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 ; 학습속도, 활동적 학습향상, 기억술 등 제반 학습활동 및 생활 지원

⑧ 학년별 전환지원 : 신입생과 재학생 및 졸업반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전환학년(신입생과 편입생), 재학생(2-3학년) 및 졸업학년(4학년)에 필요한 지원 제공.

※ COD는 <http://www.csun.edu/cod/sdr/general/registering.htm> 검색

(2) 국립청각장애센터(NCOD)

이 대학의 NCOD는 원래 LA 북구의 San Fernando College에 1962년 청각장애 재활행정요원 훈련을 위해 연방정부의 기금으로 설치됐는데, 1971년 비용을 연방정부 직업재활국 지원하고, California State University 학칙에 의해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로 통합돼 이 대학의 한 행정부서로 설치되었다. 1978년 국립청각

장애센터(NCOD)로 개명되었고, 1989년 센터 건물이 신축됐으며, 오늘날 학기당 약 200명 이상의 농 및 난청학생들이 수화통역, 자막방송, 타자술, 대필, 개별교수 및 학습자문 지원을 받고자 CSUN에 등록한다. 2005년 CSUN에는 소장인 R. Sidansky를 포함하여 10명의 상근직원과 14명의 비상근(학기기간만 통역사 근무) 직원이 재직하고 있다.

【지원 영역】

- ① 보조지원 : 통역-수화 통역 및 수화 음역, 대필 지원, 실시간 자막처리, 개인교수, 학습자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 ② 동아리 지원 : 교내 여러 청각장애학생 동아리, 일반학생 동아리 참여 지원
 - ③ 진로지원 : 진로상담 · 직업배치, 면담술 개발, 통역, 개인교사, 보조기 대여
- ※ 상세 내용은 <http://www.ncod.csun.edu/ncod.html> 검색

이상의 두 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정책과 지원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동등한 교육환경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학습권이 보장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 대학들이 장애학생들을 위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개인적 요구에 알맞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대학들도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요구에 적절한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학에서 사회 진출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대학들이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습 및 생활의 편의제공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과 적응능력 개발을 위한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대학들도 장애학생들에게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학습 전략, 시험 전략, 적응활동 전략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원 자체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IV. 대학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지침

장애학생 지원 선행연구의 검토와 관련집단과의 심층면담, 국내·외 실태조사 및 장애학생 지원 요구조사, 관련집단협의회 결과, 미국 대학 지원 실태 등을 통해 이 연구의 결과로 「대학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지침」을 제시하고 한다.

1. 기본 방향

첫째, 대학은 모든 장애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고등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교육적 기회와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장애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고등교육을 차별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장애인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장애학생이 일반학생들과 동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이 장애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보상해 주는 차원의 제반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대학은 모든 장애재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교육 및 생활지원을 체계적으로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 대학은 모든 재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원활히 영위하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아가기 위해 개인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신장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학생 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무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대학은 모든 장애재학생 교육의 형평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 요구에 알맞은 지원을 일관성있게 제공해야 한다.

2.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지침

1) 지원 체제

(1) 지원제도 :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발, 학습지원, 생활지원, 전담직원의 배치, 장학금 지급, 학점제 등록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들을 학칙에 규정하고, 실행조직을 구성하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장애학생 지원 관련운영위원회 :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심사·선정,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학칙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대학 재정의 총괄책임자, 장애인복지관련전공교수, 장애학생과 그 부모가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3)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 : 장애학생 지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수와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규모로 지원담당부서(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4) 지원절차 : 장애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각종 문서와 학생들의 지원신청 및 지원 절차를 개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원절차로는 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지원여부 결정·통보 → 지원 → 지원종료 및 평가 → 지원내용 개선 과정을

설정하여 이것을 순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5)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 장애학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원자와 수혜자가 서로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학 운영방침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지원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지원도우미의 책임, 교강사의 책임, 동료 일반학생들의 책임, 그리고 각 장애영역별 지원 내용과 방법, 지원절차 등의 교육 및 생활지원이 담긴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하여 배포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입학 지원

(1) 전형 방법 : 대학은 장애학생이 입학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어떤 차별이나 부당한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정한 방식으로 입학사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전형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방식으로 별도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 원서 교부 및 접수 :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학생들이 입학관련 정보와 입학원서를 교부받고,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과정을 통해 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자료, 기자재 및 보조인력 등 별도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정 : 대학이 특별전형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진흥법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해야 한다. 선정고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고사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신입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과 같이 장애학생들에게 특성에 적합한 대학생활의 과정과 방법을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해 줌으로써 대학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학습 지원

장애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대학은 교수-학습활동의 과정에서 장애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고 수강, 과제수행, 평가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 수강신청 : 수강신청 공고문을 점자 또는 음성합성 프로그램 등으로 제공하고, “장애학생 수강신청 우선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학기별로 능력에 알맞는 학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학점 등록제도”를 학칙에 규정하여 시행한다.

(2) 강의실 접근 : 대학은 장애학생을 위해 강의실 배정,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구 사용가능 책상 제공으로 “장애학생 지정 좌석제”를 실시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수화통

역사나 대필자 등의 보조인력을 위한 책·결상도 제공한다.

(3) 학습도우미 : 보조인력을 요청하는 장애학생의 명부 및 도우미로 활용할 일반학생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고, 요청시에는 대필자, 수화통역사 등의 보조인력을 지원해야 하며,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하는 학생들을 위에게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이들에게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해 준다.

(4) 교재·교구의 지원 : 장애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모든 교재와 자료를 구비하여 안내 또는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최대한의 학업성과를 성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교과목의 교재를 점역하거나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5) 강의 지원 : 장애학생이 신청한 교과목 담당교·강사에게 출석부의 비고란 등에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을 기록하여 출석부를 배부하거나, 담당교수에게 장애학생 수강에 대해 개인별로 안내 고지한다. 설명식 수업의 경우 강의내용 녹음 허용, 강의자료 파일 제공을 요청하고,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수화통역사, 대필자 등의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실험·실습시간에 장애학생이 참여할 경우 실험·실습 참여 일반학생들에게 장애학생의 지원방법을 안내해 준다.

(6) 판서 :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강의 전후에 판서내용을 파일이나 녹음자료로 제공한다.

(7) 과제 지원 : 장애학생을 위해 과제 제출방법을 필기물에 한정하지 말고 파일로 제출하거나, 대필작성의 허용, 면담을 통한 대안과제 제시방법도 허용한다.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자원봉사자 등을 배정하여 자료검색, 문헌수집을 지원한다.

(8) 보충·심화 학습 : 강의 내용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의 보충·심화학습에 필요한 내용은 장애 특성에 맞게 제작·배부하고, 필요하면 교과목 수강을 위해 기초학력의 보충·심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며, 담당교강사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장애학생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보충·심화학습을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의 선배들로부터 학습지원을 받는 “장애학생 개별교수제”를 시행한다.

(9) 평가 지원 : 장애학생의 평가시간을 일반학생보다 대략 1.5~2배로 연장해 주고, 답안의 대필을 허용할 경우 별도의 대필자와 독립된 장소를 제공한다. 장애학생 특성에 적합하게 평가를 제작·제공한다. 장애학생을 위해 평가방법이나 절차를 달리 해야 할 경우 장애 특성에 따라 필답고사의 비중을 조정하고, 다양한 과제와 구술고사 및 수행평가의 반영도를 조정한다.

4) 생활 지원

대학은 장애학생이 대학 내의 생활에서 불편을 경험하지 않도록 학업 외의 생활 전반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직업적성과 흥미 등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추후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 및 직업

을 유지하도록 사회생활에로의 전환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 행정부서 이용 : 장애학생이 대학생활의 기본이 되는 행정부서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특성에 알맞는 특별한 편의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증명서 발급이나 지원요구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하는 팜플렛이나 리플렛을 요청이 있을 경우 접자·확대 및 파일자료로 작성·배부한다.

(2) 생활상담 : 장애학생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자료를 구비하여 생활상담을 제공한다. 학과 지도교수 등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장애학생의 생활지도 및 상담, 조정 역할을 부여한다.

(3) 대인관계 : 대학 학생상담센터 등에 장애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학생들과의 의사소통력을 증강시켜 준다. 특히, 모범적인 선배학생을 선정하여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자문과 안내를 해주는 멘토링(mentoring)제를 시행한다.

(4) 기숙사 이용 : 장애학생이 대학 내의 기숙사 이용시 장애 특성에 따라 가능한 넓은 공간, 출입구·세면장·식당 등과 가까운 위치의 방을 일반학생보다 우선 배정한다. 장애학생이 기숙사 내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애 특성별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숙사 내에 장애학생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5) 편의·복지시설 이용 : 대학의 도서관, 학생회관, 식당 등에는 장애학생 전용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거기에는 장애학생 특성에 알맞는 설비를 구비하여 좌석 우선배정을 해야 하며, 장애학생 도우미 등의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6) 장학금 또는 학비 : 장애학생은 장애로 인한 치료비, 보장구비, 교통비, 학습기자재 구입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학업수행을 위하여 장학금이나 학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의 학습 및 생활을 보조하는 장애학생 도우미를 위한 장학금을 적절히 확보·배정한다.

(7) 이동·교통생활 : 장애학생이 이동지원을 요구할 경우 교내의 보조인력이나 지원인력, 지원업무 담당부서는 물론, 지역사회의 운수회사,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작·배부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8) 여가·문화생활 : 대학 내의 학생 동아리 및 여가·문화생활 프로그램 홍보물을 장애 특성에 알맞게 제작·제공함과 아울러 대학 내의 여가·문화생활 시설 등에 장애학생 좌석과 전용공간을 마련한다. 그리고 장애학생들만의 여가·문화생활 동아리를 장려·지원한다.

(9) 진로상담 및 직업 평가 : 장애학생 지원부서의 진로상담 직원은 학생의 진로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진로상담을 실시하며, 필요하면 장애학생의 개별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취업과 연계되도록 실행한다.

(10)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장애학생 지원부서에 취업알선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장애학생이 일반학생의 다양한 취업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자료를 수집·제공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등이 주최하는 장애인 취업 박람회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수집·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업체를 발굴하고 취업을 알선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 실시 이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실태와 요구 및 문제점을 수집·분석하여 장애학생들이 원활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자료로서 대학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 다섯 가지 측면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단계는 이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로서 관련 전문가집단과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두번째 단계는 구체적 지원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원 지침을 구안하고자 특별전형제 실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와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지원 요구를 조사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지원 지침(안)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위해 전문가협의회 의견과 미국 2개 대학을 방문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같은 조사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지침을 연구 결과물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장애학생이 대학입학과정에서 장애 자체로 인한 어떤 차별이나 부당한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정한 방식으로 입학사정을 받아야 하며, 학생의 능력과 적성 수준에서 어느 대학이나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기 위해서는 많은 대학들이 특별전형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의 비율도 낮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학생 대학입학 문호는 아직도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장애학생 입학전형 방법을 적절히 운영하는 대학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이 전반적으로 미약하고, 개별 학생의 요구에 부적합하게 제공되고 있다: 학생의 학교생활의 핵심요소는 학습활동이며, 학습활동은 학습권 보장의 핵심이 된다. 학습지원이란 장애학생이 교수-학습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고 학생 개인의 요구에 알맞게 수강, 과제수행 등에 참여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지원, 학습도우미 지원, 보충학습자료 제공, 평가

지원, 학점등록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수-학습과정에서 일반학생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 학생 요구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미지원, 부적절한 과제부여와 평가방법, 실험실습활동에서의 소외 등으로 인해 많은 장애학생들은 여전히 교수-학습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학습지원이 저조한 상태는 장애학생들이 학습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학습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장애학생을 위한 생활지원이 전반적으로 미약하고, 개별 학생의 요구에 부적합하게 제공되고 있다: 대학에서 적응활동 여하는 사회생활의 적응과 직결되는 주요소이다. 장애학생들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대학 환경에 적응하는데 심리적·물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신변처리, 이동, 시설사용, 정보접근, 경제활동, 대인관계 등 많은 방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학생은 대학 생활에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의 활동상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감소 혹은 극복하는데 지원이 미약하여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와 기구, 전문인력 등 전달체계의 확립이 미약하다: 대학이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 및 생활지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원활히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비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은 장애학생을 지원할 규정이 없거나 미약하고, 지원담당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래서 형식적인 제도는 있으나 실제적인 지원은 없고, 지원은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비용에 관계없이 개선이 가능한 교수-학습 영역은 대학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짧은 기간에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지침은 대학에서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대학 모든 학생에 균일하게 적용되기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실정에서 대학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따라 대학이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에 대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장애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일반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학들이 특별전형제를 실시해야 하며, 장애학생들이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

절한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대학은 장애학생들이 어려움없이 교수-학습 상황에 접근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장애학생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기재를 구비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하며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습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수나 학생의 장애범주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수준과 강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장애학생이 한 명 재학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대학은 장애학생이 대학 내의 적응활동에서 불편을 경험하고 배제되지 않도록 편의와 지원을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학업 외의 개인적인 적응활동 전반의 문제 감소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직업적성과 흥미, 신체적 능력과 심리적 상태 등에 관한 제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추후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 및 직업을 유지하도록 사회생활에로의 전환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대학은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 제도를 구비하고 전담 인력 또는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요구에 적절한 교육 및 생활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지침이 대학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연구 개발을 위한 지침으로 널리 활용되어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용주(2003). 대학재학 장애인 실태조사; 기초직업육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육부(199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정기국회보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정기국회보고자료.
 권병현(1999). 청각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남순(2001). 장애학생의 특례입학과 대학시설 환경 및 제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 연구**, 36(1), 81-100.
 김동연, 김영환(1998).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방안.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김동연 등(1999). 장애학생 고등교육의 방향. **현장특수교육**, 6(4), 8-51.
 김민경(1999).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성애 등(2001).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모형연구: 통합교육환경에 서의 장애학생지원.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김성애, 박찬웅, 이혜균(2003).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7(4), 335-357.

- 김성진(2003). 대학교: 이상, 현실 그리고 개혁. 서울: 한국교육미디어.
- 김종인(2004). 장애학생 지원조직 구성과 실제. 장애학생 지원조직 구성과 실제. 국립한국재활복지 대학 제2회 장애학생 통합교육세미나 자료. 25-62.
- 김지영(2000).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대학의 입시제도 분석.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헬레나(2000).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김형수(2001). 무장애대학 만들기. 서울: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
- 박계순 등(2002). 대학입학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현장특수교육**, 7(5), 34-44.
- 양재신(2000).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 장애 대학생 교육환경. **현장특수교육**, 11/12월호, 41-44.
- 오경자 등(1998).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 원종례(2001). 장애대학생의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8, 47-70.
- 윤점률, 김주영(200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이후 학내 지원체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정정진 외(2003).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편람 및 기준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2002-특-33.
- 조한진(1997). 장애인 대학과 대학의 장애학생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민숙 외(2002). 장애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교수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특수교육**, 제1권, 133-157.
- Krueger, R. A. & Casey, M. A. (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3rd. Ed.)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Inc.
- National center on deafnes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Unpublished Paper.
- The Disabled Students' Program.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published Paper.
- <http://dsp.berkeley.edu/TeachStudentsWithDisab.html>
- <http://www.csun.edu/cod/sdr/general/registering.htm>
- <http://www.ncod.csun.edu/ncod.html>

A Base Study on the Educational and Living Services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hung, Chung-Chin

Kangnam University

Lee, Hae Kyun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nalyze the status of support systems that were offered from universiti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ince the policy on exceptional admissions were implemented and to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setting up program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ir education and school living during their college years. With these purposes, focus group interviews were implemented with related specialists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o currently attend universities. The status of school support systems were analyzed and the special needs and points that were commented by students as problems were collected. Furthermore, two outstanding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providing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ere benchmarked. Their programs and support systems were analyzed. Based on overall outcomes, guidelines on support programs regarding four areas : support systems, admission, teaching-learning and school living were provided. The outcomes and guidelines may be applied both national and school level.

key words: Educational and Living Services Program,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support system

논문 접수: 2006. 2. 19

심사 시작: 2006. 2. 20

게재 확정: 2006. 3. 23